

종합

프로야구 올스타전 광주는 지금 '票 전쟁'



오는 25일 11년 만에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올스타전 입장권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무등야구장 규모가 다른 도시 야구장보다 훨씬 작은 데다 올스타전을 주관하는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쾌적한 관전을 위해 입장권을 줄여 판매하기로 해 표 구입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프로야구 올스타전은 잠실(3만500석)·사직(2만8천500석)·문학(2만7천800석) 등 2만5천 석이 훨씬 넘는 큰 구장에서 치러졌다.

하지만, 무등경기장 야구장의 정원은 이 세 구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만3천400석이다. 게다가 KBO는 열악한 경기장 사정을 감안, 정원보다 1천400장 정도 입장권을 줄여 판매하기로 했다.

결국, 이번 올스타전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은 1만2천 명. 여기에 올 시즌 프로야구는 역대 세 번째 최소경기 300만 관중을 돌파

11년만에 무등경기장서 25일 개최

인터넷 예매 9천장 하루만에 매진

남은 3천장 '웃돈' 주고 사야 할 판

한 데 이어 팽팽한 순위 경쟁까지 전개되면서 올스타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져 구름관중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야구팬들도 모처럼 만의 야구 잔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행사 당일 날 티켓 구입 아우성은 불보듯 하다.

인터넷 판매는 지난 10일 예매가 시작되면서 예정 분량인 8천700여석이 다음날인 11일 자정 넘어 매진됐다.

남은 현장 판매분은 3천 장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남은 3천 여장

도 고스란히 일반 팬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프로야구 8개 구단이 입장권을 경품으로 한 이벤트 등을 통해 교환권 형식으로 1천 여장의 표를 예약해둔 상태다.

따라서 경기가 다가오면서 KBO와 각 구단 사무실에는 입장권 구입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에도 미리 표를 구할 수 없느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KBO에서 행사를 총괄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연히 각 포털 사이트 야구계시판에도 올스타전 표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웃돈을 주고서라도 인터넷 예매분을 구하려는 이들의 게시글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올스타전 현장 판매는 25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 이날 무등경기장에는 새벽부터 '귀하신 몸'이 된 올스타전 표를 구하기 위해 장사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光속구상' 누가 받을까

광주세계광엑스포재단 시상

'2009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광(光)속구'상이 시상될 예정이어서 흥미를 더해주고 있다.

21일 광주세계광엑스포 사무국에 따르면 '2009 광주세계광(光)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 오는 25일 오후 5시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에게 상금 300만원과 함께 광속구상을 주기로 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스피드 칸'으로 투수들이 던지는 공의 속도를 측정해 경기가 끝난 직후 흥진태 광주세계광엑스포 사무총장이 해당 투수에게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광주세계광엑스포 사무국은 또한 야구장 밖에 광엑스포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 팸플릿도 관중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건축학 대학 나와야 건축사 된다

예비시험 2020년 폐지

건축사 예비시험이 2020년부터 폐지돼 5년제 건축학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으면 건축사가 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사 자격제도는 예비시험

과 자격시험 등 2단계로 돼 있다.

예비시험에는 대졸 학력은 실무경력 없이, 전문대졸 이하는 2-9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 가능하며, 예비시험 통과 이후 5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예비시험을 없애면서 5년제 건축학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뒤 3년의 실무수련을 거친 경우에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가축 방역활동 강화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인 21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의 한 축사에서 북구청 방역반이 긴급 가축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나병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쇠고기 이력제' 위반 12건 적발

22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은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관련 광주지역에서는 모두 1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나서 시행 한 달간 광주 지역에서 거짓표시 7개소, 미표시 5개소 등 총 12개소를 적발, 시정명령서를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거짓표시"는 소의 주민등록번호와 할 수 있는 '개체식별번호'가 도축·유통과정에서 바뀐 경우를 의미한다.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

해 도입된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식육판매 영업자는 진열·판매 중 인 쇠고기기에 대해 쇠고기 또는 식육 표시판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전남지원은 개체식별번호가 거짓 표시로 의심될 경우 시료를 수거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고 "불일치" 판정이 유전자분석을 추가 실시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직장인 70%

"경조사비 5만원 낸다"

직장인들이 한 번에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주로 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99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 차례 경조사비로 5만원을 낸다는 응답자가 70.7%로 가장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그다음으로는 3만원(14.4%), 10만원(9.5%)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한 경조사비 지출규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7%가 비슷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호남 대법관' 탄생하나

김관재 광주고법원장·오세욱 광주지법원장 등 거론



김관재 고법원장 오세욱 지법원장 이상훈 지법원장 정갑주 지법원장

대법원이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선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호남 대법관' 탄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9월 11일 임기가 끝나는 김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제청자문위원회는 송 위원장을 비롯, 김경환 법무부장관과 김영란 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김영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8명으로 구성했다.

대법원은 24일부터 30일까지 대법관으로 제청할 후보자 추천을 받음 예정이다. 추천 대상은 법조경력 15년이 넘는 40세 이상의 법조인이다. 그동안 광주·전남에선 김관재(56·강진) 광주고법원장과 오세욱(55·광주) 광주지법원장이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김 원장과 오 원장의 경우 이 대법원의 고교(광주일고) 후배이자 광주·전남의 법조계를 이끌어온 '항판'

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꼽혀왔다.

특히 김황식 전 대법관이 지난 2008년 감사위원장으로 이통한 이후 전체 대법관 14명 중 이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호남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호남 대법관'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지역 안배를 고려할 경우 정갑주 전주지법원장(55·강진)과 이상훈 인천지법원장(53·광주) 등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다.

한편 제청자문위가 내달 10일께 회의를 열어 추천된 인물 가운데 2~4명을 고르며 대법원장이 그 중 1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본사 인사

▲金龍浩: 편집국 사회 2부 장성주재 (7월 21일자)

빛日만평

- 김중두



'4대江'은 언제 물어 보고 했습니까?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062)227-9600
FAX:(062)227-9500

산행안내
14면 게재

안도 명사심리 바닷가 명매
신지연 신리 田 740평 평당 16만원
신지연 신리 田 1000평 평당 19만원
신지연 대곡리 田 350평 평당 59만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최준식 (300930-1632016)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제관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1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CH 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침구학 아카데미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 11기) 8월 7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신회관 뒷편

2010년 합격을 대비한 대강좌
7·9급 공무원
8월 1일 (주야 합동반 모집)
(현재 상담 예약 접수중)
시행일정 및 채용인원
시행일: 국9급, 미년 4월 / 7급, 9월 시행
시)9급, 미년 5월 / 7급, 9월 시행